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중점들

메시지 15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됨.

성경: 롬 1:1, 9, 15:16, 16:25, 출 19:6, 뱀전 2:5, 9, 계 1:6, 5:10

- I.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출 19:6, 계 1:6, 5:10). 성경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길 제사장 직분, 즉 제사장인 몸을 가지시려는 조망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한다(뱀전 2:5, 9 비교 계 2:6, 출 32:1-6, 25-29).
 - A.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모양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권을 위해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임을 가리킨다—창 1:26, 고전 10:31, 롬 5:17, 21, 사 43:7.
 - C. 하나님은 영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 장 7 절에서 이 영은 ‘생명의 숨’이라 불린다(비교 잠언 20:27).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이다(요 4:24).
 - D.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살기를 갈망하셨음을 가리킨다—창 2:9, 요 6:57, 계 2:7.
 - E.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출 33:11, 14, 고후 2:10).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와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 다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와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말 2:7, 계 1:20, 뱀전 4:10-11, 고후 5:18-20, 히 10:22, 4:16, 비교 출 27:20-21, 28:2).
- II.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거절했지만 그의 일은 신약의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었다(막 1:1-4). 요한은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했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막 1:1).
 - A.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성전에서 섬기지 않고 광야에 머물렀다. 그가 생활한 장소, 입은 것, 먹은 것, 일한 방식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끝냈다. 그의 일은 신약의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었다—막 1:1-8.
 - B.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신약 제사장은 침례자 요한이었다. 요한은 황소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지만(히 10:1-4)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요한은 그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 회개한 사람들을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성령 안에 침례 주실 분인 그리스도께 이끌었다(막 1:4-8).
 - C. 구약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동물 제물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확대와 증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희생 제물들이다—롬 15:16, 뱀전 2:5, 9.
 - D. 주 예수님은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 안에 사셨다.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는 침례자 요한의 전파에서 시작되었다—막 1:1-8, 마 11:13, 눅 16:16, 행 10:37.

III.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롬 1:1:

- A. 하나님의 복음은 성약이자 유언(히 9:16-17, 눅 22:20, 사 42:6, 49:8)인 좋은 소식이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 27 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기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는 복음을 지닌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이다(딤후 1:3-4, 요 1:14, 16, 고전 15:45 하, 엡 3:8).
- B.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다.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서로 여겨질 수 있다—롬 1:1, 2:16, 16:25.
 - 1. 처음 네 복음서는 육체 되신 그리스도,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그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살고 계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롬 8:2, 6, 9-11, 16.
 - 2.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주관적인 복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관적인 구주를 계시하는 다섯 번째 복음서인 로마서가 필요하다.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방 교회들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해 육체에 안에 있는 죄인들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롬 8:29, 12:1-5, 16:1-27.
 - 3. 우리 모두는 로마서에 있는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요소들과 상세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 전체를 체험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롬 15:16.

IV.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롬 15:16.

- A.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벧전 2:5.
 - 1. 이 제사장의 봉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했던 많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롬 15:16, 16:4-5.
 - 2. 이들 이방인들은 속된 것에서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롬 6:19, 15:16.
 - 3.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신다—롬 3:24, 12:2, 요 3:15.
- B.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본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서신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교회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지를 말한다—살전 2:1-12, 행 20:17-36, 롬 1:16-17, 3:24-26, 12:1, 4-5, 13:11.
- C.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신약의 봉사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이다—계 1:5-6, 5:9-10, 벧전 2:5, 9.
 - 1.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확대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인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다—롬 15:16.
 - 2.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 a.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새로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로 드린다—롬 15:16, 벧전 2:5.
 - b. 새로 믿은 이들은 자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후, 격려를 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제물로 드린다—롬 12:1.

c. 믿는 이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할 때, 그 믿는 이들에게 수고한 이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이들로 드린다—골 1:28.

3.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봉사이다. 우리의 봉사의 초점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롬 15:16, 12:4-5, 벰전 2:5, 9, 엡 4:11-12, 16.

V.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롬 1:9.

- A. 믿는 이들에 관해 신약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한 요구 조건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통해 몸의 신성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엡 3:2, 히 4:16, 롬 5:17, 21, 요 7:37-38, 행 6:4, 빌 1:5-6, 19-25.
- B.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실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마 4:9-10, 아 1:2, 비교 시 2:11-12.
1. 로마서 1 장 9 절에 있는 ‘섬기다’라는 헬라어는 마태복음 4 장 10 절, 디모데 후서 1 장 3 절, 빌립보서 3 장 3 절, 누가복음 2 장 37 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경배하며 섬기다’를 의미한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를 단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겼다.
 2.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할 때, 우리는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히 9:14, 10:22, 요일 1:7, 9, 행 24:16, 비교 딤후 4:7.
 3.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행 5:42, 롬 1:3-4, 8:29.
 4.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롬 1:9).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든(롬 2:29, 8:5-6, 9), 무엇을 갖고 있든(롬 8:10, 16),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든(롬 1:9, 7:6, 8:4, 13, 12:11)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 C.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빌 3:3, 비교 롬 2:28-29.
1.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 자체와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좋은 나쁜든 타고난 것은 다 육체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타고난 출생에 따라 가진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속한 모든 것은 육체의 일부이다—빌 3:4-6.
 2.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자질과 자격과 능력과 지능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 이러한 빛 비춤을 받고 나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본성 안에서 한 모든 것이 악하고 유죄 판결 받아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빌 3:7-8.
- D. 주님을 위해 복음 안에서 한 우리의 일과 수고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에 의한 것이다.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이다—민 17:8, 고전 15:10, 58, 16:10.
1.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끝내고 우리가 전혀 쓸모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후 1:8-9, 출 2:14-15, 3:14-15, 눅 22:32-33, 벰전 5:5-6.
 2.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 안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전 15:10, 고후 1:8-9, 12, 4:7-18.
 3.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빌 3:10-11, 엡 1:22-23.